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9일, 나들이객들이 장성군 황룡강 일대를 뒤덮은 꽃길을 걸으며 가을을 만끽하고 있다. 장성군은 오는 13~29일 온갖 종류의 꽃들로 꾸민 '노란꽃잔치'를 연다. <장성군 제공>

드론, 농업·스포츠 넘어 재해예방 활용

전북도, 드론 용역비 반영...재해·재난 인명구조 등 확대

고흥군 '규제프리존' 강조...제도 개선 등 국정과제로 추진

자치단체들의 드론(초소형 무인 항공기) 마케팅이 치열하다. 농업 뿐 아니라 스포츠와 예술공연을 넘어 재해위험지역에도 활용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전북도는 내년 재해 관련 예산에 '드론 용역비'를 반영, 내년에 새로 설계하는 도내 50개 사업장에 드론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재해위험 지역에 드론을 활용한 정책으로, 드론이 동영상을 촬영하면 정확하고

정밀한 실제 파악을 거친 뒤 실시설계와 시공의 적정성을 검토해 위험지역 공사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재해 위험도를 확인하고 위치 및 설계의 적정성 확보와 공사의 부실 확인, 기성 검사와 검측 등을 드론이 맡는 셈이다. 전북도는 각 시·군 에도 드론 구매를 권고하고 측량·설계·공사·시설물 안전점검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공사 현장뿐 아니라 자연 혹은

사회 재난 등 도정 업무 전반으로 드론 이용을 확산할 방침이다. 고흥군은 정부가 발표한 국내 유일의 '드론산업 규제프리존' 지역으로 지리적 강점이 우수하다는 점을 내세워 드론 경쟁력 강화에 나선 상태다. 고흥군은 올해 드론산업 활성화 지원 로드맵을 마련하고 인프라 구축, 제도 개선, 기술개발·융합생태계 조성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주시는 국내 최초로 드론축구팀을 창단하는 등 드론축구 산업을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차세대 핵심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드론축구는 첨단 탄소소재와 ICT융합 기술로 제작된 축구공 모양의 드론을 고도의 비행제어 기술을 활용해 너비 80cm 정도의 원형 골대에 집어넣는 신개념 ICT 스포츠로, 전주시가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외 나주시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드론 국가자격증반'을 운영하는 등 드론 교육을 진행중이며 순천시도 드론체험장 및 교육원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정부는 드론산업 발전기본계획을 수립중으로, 오는 2026년까지 기술경쟁력 세계 5위권 진입,산업용 드론 6만대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무등산 깃대종 '털조장나무' 곡성에 국내 최대 군락

전남산림자원연구소 확인

무등산 생태계를 대표하는 깃대종인 털조장나무(사진)가 곡성에서 집단 자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전남산림자원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곡성 일대 산림자원을 조사한 결과 곤방산 일대 20~30ha에서 무등산 깃대종인 털조장나무가 집단 자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규모는 국내 최대다. 깃대종이란 특정 지역 생태계를 대표하는 계곡부에서 잘 자라는 난대성 낙엽활엽관목이다. 높이 3m까지 자라며 4월에 노란 꽃이 핀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지금까지 무등산과 조계산 일대에만 부분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규모 집단 자생지가 발견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곤방산 일원에서는 상수리, 신갈, 굴참, 갈참, 졸참, 떡갈나무 등 낙엽성 참나무류 6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특히 가슴 높이에 돌레가 60~70cm인 굴참나무를 비롯해 나무 높이가 20~30m에 달하는 서어나무, 노각나무, 고로쇠나무 등도 분포했다. 조피나무, 오갈피, 두릅, 옻나무 등 약용 식물도 잘 보존돼 곤방산 일대 산림생태 보존과 활용 방안에 대한 정밀 조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산림자원연구소는 전했다. 전남산림자원연구소는 그동안 전남지역 산악과 섬지역 산림자원 연구를 위해 2013년부터 산림자원조사단을 운영, 광릉요강꽃, 나도솔매, 콩까래 등 환경부 법정 보호종(I·II급)의 도내 서식을 확인하고, 유용자원을 확보해 '산림자원 추출물은행'을 운영해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북, 추석 이동 차량 340만대 일일 통행량 20% 증가

을 추석 연휴 동안 전북지역을 오간 차량은 340만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연휴가 시작된 지난달 30일부터 8일까지 9일간 전북 지역 통행량을 거쳐 차량은 모두 332만2586대였다. 날짜별로 보면 지난 4일에 교통량(56만7979대)이 가장 많았고, 5일 54만7775대, 6일 38만7184대, 7일 35만541대 순이었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측은 "호남고속도로 노선 분기점과 익산장수고속도로 완주 분기점에서 차량이 상습적으로 정체했지만 비교적 원활한 흐름을 보였다"면서 "하루 평균 차량 통행량이 지난해보다 20%가량 늘어났다"고 말했다. /김영희기자 kimyh@kwangju.co.kr

알아두면 좋은 전남 농어업인 혜택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카드 신청하세요

오늘부터 영화관 등 사용

전남 여성 농어업인의 문화·여가 생활을 지원하는 행복바우처 카드가 10일부터 발급된다.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촌의 고령화로 비중이 늘고 농산물 판매·가공, 농업 경영관리자로서의 활동도 늘고 있는 등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지만, 남성이나 도시지역 여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여가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여성 농어업인 문화·여가 생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해 올해 처음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카드를 도입했다. 이 카드의 사용 가능한 금액은 10만

원이며, 전국 어디서나 미용실·목욕탕·음식점·영화관·서점·스포츠센터 등 36개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전남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부터 만 70세 미만의 여성 농어업인이 대상이다. 해당 읍면동에 신청해 선정되면 매년 자부담 2만원을 포함한 10만원을 지원받는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내년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연말까지 꼭 사용해야 한다. 김선호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앞으로 보다 많은 여성 농어업인이 혜택을 받아 삶의 질이 더욱 윤택해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고교생 자녀 둔 농어업인에 학자금 지원

10월 말까지 신청

전남도는 농어업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교생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고교생 자녀를 둔 농어업인이면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분기별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올 4분기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을 바라는 농어업인은 10월 말까지 해당지역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당해 연도에 한해 소급도 가능하다.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에 재학한 자녀 또는 직접 부양하는 동생이나 손자

녀를 둔 전남 농촌지역이나 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다. 농외소득 기준과 영농 규모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지원청·직장 등에서 학자금을 면제받거나 지원받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농어업인 해당 여부 등 자격 조건 검토를 거쳐 지원한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농어업인 해당 여부 등 자격 조건 검토를 거쳐 지원한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농어업인 해당 여부 등 자격 조건 검토를 거쳐 지원한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농어업인 해당 여부 등 자격 조건 검토를 거쳐 지원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순천 '미인막걸리' 10월 남도 전통술 선정

전통 누룩으로 저온 숙성

맛·향·청량감 뛰어나 인기

전남도는 10월을 대표하는 남도 전통술로 새순전양조영농조합법인(대표 송병기)의 '미인막걸리'를 선정했다. '미인막걸리'는 쌀 100%를 사용하고, 전통 누룩을 넣어 120시간 저온 숙성해 알코올 생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숙취 유발인 물질을 아세트알데히드를 줄였다. 특히 맛과 향이 좋아 목 넘김이 부드러운 막걸리 특유의 냄새와 트림을

방지하도록 개발해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층과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다. 또 2014년과 2015년 남도전통술 품평회에서 탁주 부문 최우수상과 대상을 차지하는 등 술맛에 대한 우수성을 입증받았다. 판매 가격은 750ml 1병당 1200원이다. 이춘봉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전통주는 우리 쌀과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고부가가치가 높은 식품산업"이라며 "전통주 산업과 농업이 동반 성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판선·전원주택

- 담양 월산면 월평리 전 1689㎡ 편안한 분위기 1억4500
- 장성 북이면 백양동계이트부근 전 2192㎡ 다용도가능 1억1500
- 원도 약산면 해안가 대지 607㎡ 판선용 주택과 낚시배 1억 1500

주택·원룸·아파트

- 원도 약산대지 1266㎡ 주택 27평과 별채 황토방 산 12393㎡ 포함 2억6천
- 서동 대지 185㎡ 상가와 5세대 전세 2억7천 월 55 만20만원 4억
- 농성초교부근 2층 상가주택 대지 108㎡ 건평 113㎡ 1억8백
- 화정동 중흥파크2-1-1번 대지 149㎡ 주택 160㎡ 상가전용가능 2억3천
- 화순읍 동면 대지 320㎡ 국유지 50여평도 사용 북층주택 60여평 판백나무 준공 갤러리·커피숍·식당 적합 3억8천

투자·매도·교환

- 담양 고서면2차선점 1271㎡ 건평 212㎡ 철고·식당등적합 4억7300
- 담양 월산면 월평리 담 4846㎡ 과수원·농장적합 1억
- 무안 현경면 바닷가 전 4542㎡ 공사가 7천만 매도 8300만원

상가건물

- 계림동 상업지 대지 106㎡ 복층건물 122㎡ 식당·카페적합 1억6600
- 농성동 4차선점 대지 132㎡ 건평 237㎡ 은행 2억5천 매도 6억4천
- 농성동 대로점 대지 313㎡ 건평 997㎡ 병원·사무 등 적합 24억
- 월산동 신축 3층 상가주택 대지 175㎡ 매도 5억6천
- 유동 모델 대지 422㎡ 건물 984㎡ 감정 12억 교환가능 7억8천
- 주월동 무등시장부근 대지 209㎡ 다가구 14세대 328㎡ 3억5천

원룸·다세대 부지

- 동명동 준주거지 294㎡ 법원과 조세대 사이 3억7천
- 신안동 상업지 358㎡ 신안지구대 부근 4억4천
- 광산구 옥동(평동) 1438㎡ 평동역에서 1.5km 14억5천

급매

- 영암 심호읍 용당리 전 4628㎡ 공사가 2억3천 매도 1억9천
- 전원주택지 담양 금성면 대성리 14479㎡ 담양호안근 1억7천
- 복구 우산동 모델 대지 408㎡ 건평 971㎡ 27실 6억7천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현전, 농성초교옆문앞

전원주택, 토지

- 장성군 동화면 남산리 1073-7
- 대지 128평, 계획관리지역
- 문화마을 전원주택내 위치
- 침단에서 20분거리
- 현, 36세대중 25세대 거주
- 매매 - 9000만원(조정가)
- 문의. 010-3605-5000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19층 95㎡(28평)
- 보400/월47(임대중)
- 수익률 12% 이상
- 매매 6000만원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8층 49㎡(14평)
- 보200/월25(임대중)
- 수익률 12%이상
- 매매 3000만원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13층 49㎡(14평)
- 보200/월25(임대중)
- 수익률 12%이상
- 매매 3100만원

수완지구 아파트 매매

- 광산구 장덕동 양우내안에 5층(33평)
- 초·중·고 바로 인접
- 전망 좋음 놀이터 솔무공원 전망
- 로얄동 4베이 정남향 일조권 최상
- 매매 2억 7000만원

문의 010-9203-6161